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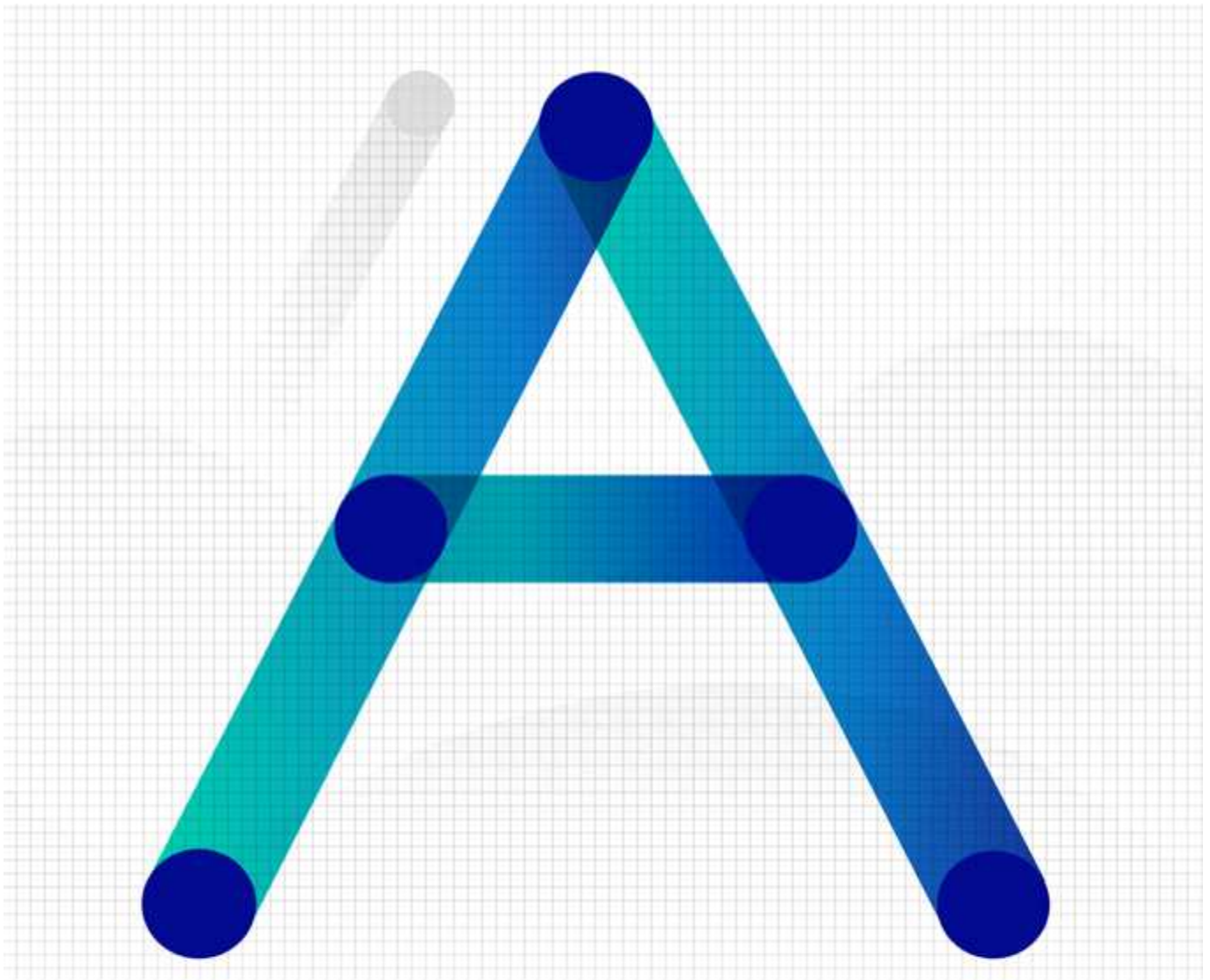
# 2022년 상반기 해외건설산업 동향

## <요약>

- I. 세계 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 II. 글로벌 건설기업 동향
- III. 해외건설 수주 동향 및 전망
- IV. 시사점

## 작성

선임연구원 강정화 (6252-3612)



## <요 약>

### I. 세계 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시장 전망) 2021년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10.9조 달러로 전년 대비 10.7% 증가했으며, 2022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5.5% 증가한 11.5조 달러 예상**

- 2022년 세계 건설시장은 2021년에 이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성장세는 다소 낮아질 전망
- 세계 건설시장은 2023년 12.1조 달러, 2025년 13.8조 달러까지 증가해 연 평균 4.8%씩 성장할 전망

**(인프라) 2022년 글로벌 인프라 시장규모는 3.6조 달러로 전년 대비 6.8% 성장할 전망**

- 2022년 분야별 인프라 시장규모는 교통 1.8조 달러, 에너지 1.2조 달러, 수처리 0.58조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8.9%, 3.0%, 8.6%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탄소중립 추세에 따라 석탄 및 가스발전에 대한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충전 등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2025년 세계 인프라 시장규모는 4.5조 달러로 예상돼 2022년 대비 16.1% 증가할 전망

**(산업설비) 정유, 석유화학 플랜트를 포함한 2021년 세계 산업설비 시장규모는 1.06조 달러였으며, 2022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5.9% 증가한 1.12조 달러 예상**

- 2022년 시장규모는 석유화학 1,510억 달러, 유틸리티 1,121억 달러, 정유 3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성장률은 각각 4.9%, 5.6%, 13.8%
- 2025년 세계 산업설비 시장규모는 1.25조 달러로 증가해 2022년 대비 11.8% 증가할 전망
- 정유부문의 경우 시장규모가 2022년 330억 달러를 정점으로 2025년까지 32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예상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자동차용 연료 수요감소로 이어져 정유부문 투자가 정체될 것으로 예상

**(지역별) 2022년 지역별 시장규모 전망은 아시아 6.16조 달러, 유럽 2.48조 달러, 북미 2.09조 달러, 중동·아프리카 0.44조 달러, 중남미 0.28조 달러 순**

- 2022년 아시아 시장규모는 인프라 2.28조 달러, 주택 2.0조 달러, 건축 1.87조 달러, 산업설비 0.69조 달러로 각각 전년 대비 8.1%, 5.8%, 7.4%, 7.8% 등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중동시장)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중동 프로젝트 계약액은 전년 대비 23.9% 감소한 197억 달러**

- 유가 상승에 따른 우호적인 발주환경으로 2022년 2분기 이후 계약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철근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글로벌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조달 문제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시장 불확실성은 변수로 작용



## II. 글로벌 건설기업 동향

**(기업 매출액) 글로벌 Top 250 건설기업의 2020년 매출액은 코로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1.1% 감소한 4,204억 달러에 불과**

- 세계 건설시장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재정을 이용한 인프라 및 주택 시장이 커짐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글로벌 기업들의 사업 참여가 내수기업 대비 불리해 글로벌 건설기업의 매출은 큰 폭으로 감소

**(공종별 매출액) 2020년 공종별 글로벌 Top 250 기업의 매출 규모를 살펴보면 교통분야 1,305억 달러, 건축 1,002억 달러, 정유·석유화학 577억 달러**

- 대부분의 공종에 걸쳐 매출액 감소가 나타났으며, 건축 및 정유·석유화학 분야 매출액은 전년 대비 18% 감소, 교통분야도 전년 대비 11%로 크게 감소
- 세계 인프라 시장의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교통분야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액 감소는 내수 건설사 우대에 따른 기회 축소에 기인

**(지역별 매출액) 아시아 지역 매출액은 1,07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3% 감소했으며, 유럽 및 북미시장 매출액은 각각 1,060억 달러 및 816억 달러**

**(국가별 기업 매출액) 2020년 글로벌 Top 250 기업 중 중국기업의 매출액은 1,075억 달러로 1위를 기록했으며, 스페인 626억 달러, 프랑스 456억 달러, 독일 333억 달러 순**

- 중국의 중동 매출액은 2016년 134억 달러 → 2017년 164억 달러 → 2018년 171억 달러 → 2019년 176억 달러 → 2020년 189억 달러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과거 가성비비를 바탕으로 중동지역 플랜트 시장에 진출했으나, Track record가 쌓이면서 중동지역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 III. 해외건설 수주 동향 및 전망

**(수주 현황) 2021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 대비 12.8% 감소한 306억 달러를 기록**

- 지역별 수주액을 살펴보면 중동 112.2억 달러, 아시아 92.5억 달러, 북미 39.3억 달러, 유럽 45.9억 달러, 중남미 13.8억 달러를 기록
- 핵심 수주 지역인 중동 및 아시아 수주가 전년 대비 각각 15.8%, 20.1% 감소해, 2021년 해외 건설 수주 감소의 주요인으로 작용
- 공종별 수주액을 살펴보면 토목 58.6억 달러, 건축 41.0억 달러, 플랜트 164억 달러를 기록
- 2021년 플랜트 수주액은 전년 대비 3.7% 감소했으며, 토목 및 건축분야 역시 전년 대비 각각 38.9%, 55.1% 감소



## **(수주 전망) 2022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코로나 및 유가 상황 개선 등으로 2021년 대비 4.6% 증가한 320억 달러 전망**

- 2016년 이후 해외건설 수주액은 200~350억 달러 수준에서 박스권을 형성 중이며, 올해도 현 박스권 내에서 수주액이 머무를 것으로 예상
- 해외건설 수주액이 정체되어 있는 이유는 2015년 이후 국내 주택시장의 호황과 2010년대 대규모 저가 해외수주에 따른 후유증으로 수익성 중심의 수주 전환때문
- 2021년 100억 달러에 못 미쳤던 중동 수주는 2022년 100억 달러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
- 우호적인 유가 상황 및 석유화학 제품 공급을 위한 플랜트 증설 수요 등으로 중동 플랜트 발주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중동 수주는 150억 달러 수준을 예상
- 하지만 최근 글로벌 금리인상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300억 달러 이상의 해외건설 수주 달성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IV. 시사점**

### **세계 건설시장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외국기업에 오픈된 시장 규모는 축소되고 있는 추세**

- 글로벌 건설기업의 매출액은 2013년 5,440억 달러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내수시장에서 외국기업의 참여가 제한 또는 축소되고 있기 때문
- 내수기반의 성격이 강한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 건설시장이 성장하고, 코로나19 극복 및 경기부양을 위해 내수 건설기업에게 발주가 확대돼 외국기업들의 시장참여 기회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

### **2022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수익성 중심의 보수적인 수주 스탠스가 지속돼 전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국내 건설시장의 호황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리스크가 높은 해외건설 수주에 대한 적극적인 수주 유인이 낮은 상황

### **원자재 가격 및 금리 상승 등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내 건설시장의 호황도 2024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다운턴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2년 이후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한 우리 건설사들의 노력이 필요**

- 내수시장 축소에 대비해야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역 다변화 및 신사업 개발 등 해외수주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



## I. 세계 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 1. 세계 건설시장 동향

**2021년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10.9조 달러로 전년 대비 10.7% 증가했으며, 2022년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5.5% 증가한 11.5조 달러 예상**

- 코로나19 발생으로 2020년 세계 건설시장은 마이너스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됐으나, 글로벌 유동성 공급 확대 및 각국의 건설경기 부양 조치로 세계 건설시장은 예상보다 호조세를 기록
- 2020년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6% 증가한 9.9조 달러였으며, 2021년은 전년 대비 두자리 수 성장세를 기록
- 2022년 세계 건설시장은 2021년에 이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그 성장세는 다소 낮아질 전망
- 2022년 세계 건설시장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기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철강 및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단가가 급상승 중
- 글로벌 긴축에 따른 금리상승은 세계 건설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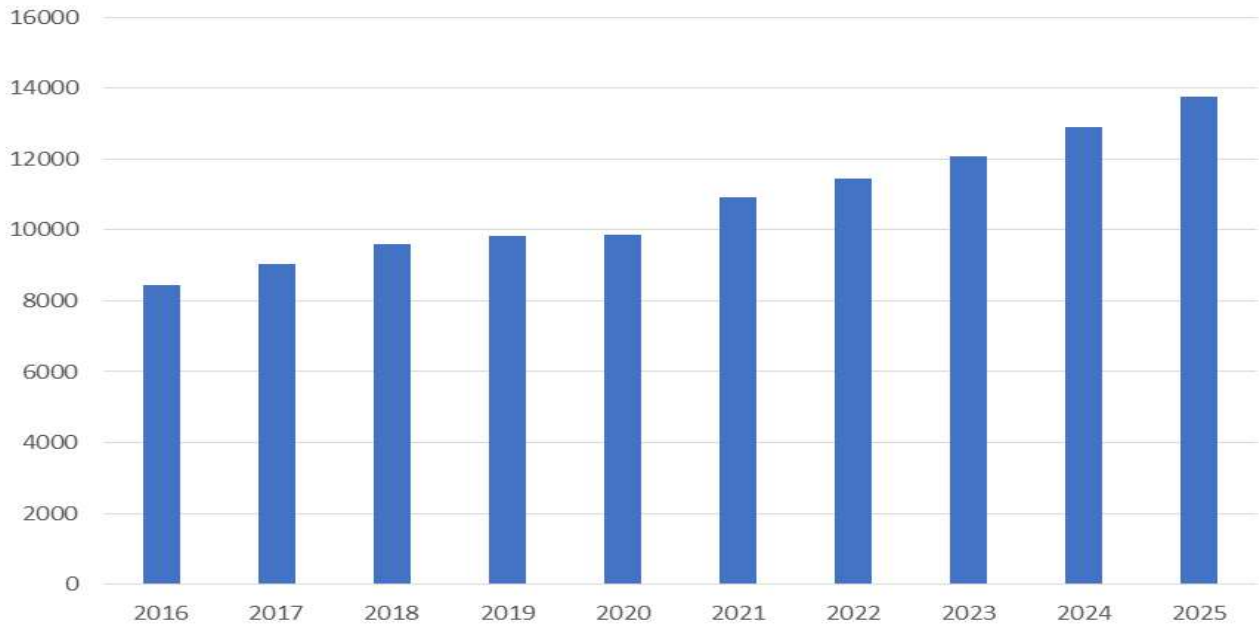
**세계 건설시장은 2023년 12.1조 달러, 2025년 13.8조 달러까지 연 평균 4.8%씩 성장할 전망**

-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으나, 세계 경제성장과 더불어 세계 건설시장 규모도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미국 및 유럽 등 선진시장의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중국 등 아시아 지역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지속으로 세계 건설시장 규모도 2025년까지 성장세를 유지
-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과거 화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 자동차 등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가 향후 세계 건설시장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전망
- 관련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예정되어 있어, 친환경 발전 및 교통 인프라 분야가 세계 건설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전망



## 세계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HS

## 2. 공종별 건설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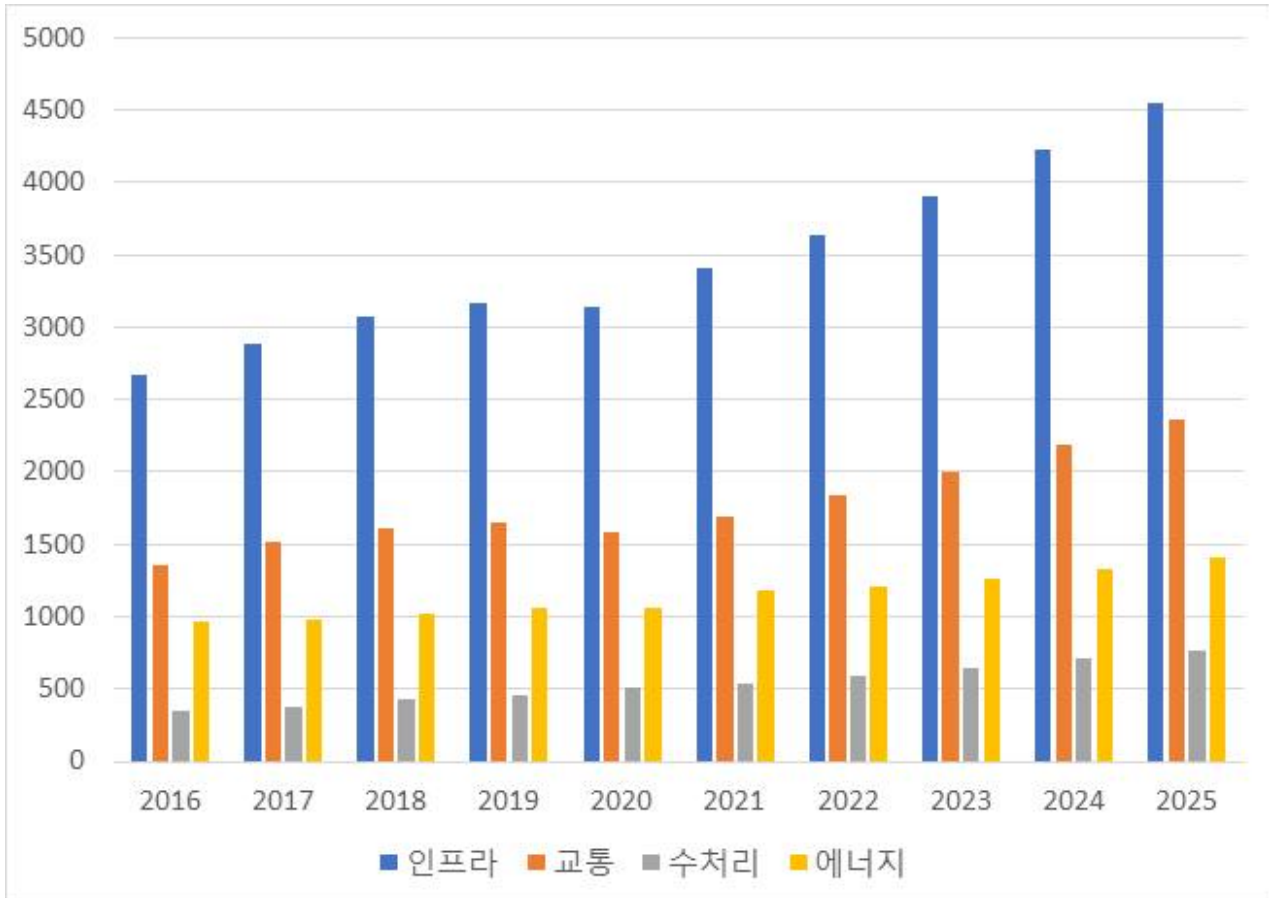
**(인프라) 2021년 세계 인프라 시장규모는 3.4조 달러였으며, 2022년 3.6조 달러로 전년 대비 6.8%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21년 분야별 인프라 시장규모는 교통 1.7조 달러, 에너지 1.2조 달러, 수처리 0.54조 달러였으며, 전년 대비 각각 6.8%, 11%, 6.7% 증가
- 2022년 분야별 인프라 시장규모는 교통 1.8조 달러, 에너지 1.2조 달러, 수처리 0.58조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8.9%, 3.0%, 8.6%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탄소중립 추세에 따라 석탄 및 가스발전에 대한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충전 등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2025년 세계 인프라 시장규모는 4.5조 달러로 예상돼 2022년 대비 16.1% 증가할 전망
- 2025년 분야별 인프라 시장규모는 교통 2.4조 달러, 에너지 1.4조 달러, 수처리 0.76조 달러



## 세계 인프라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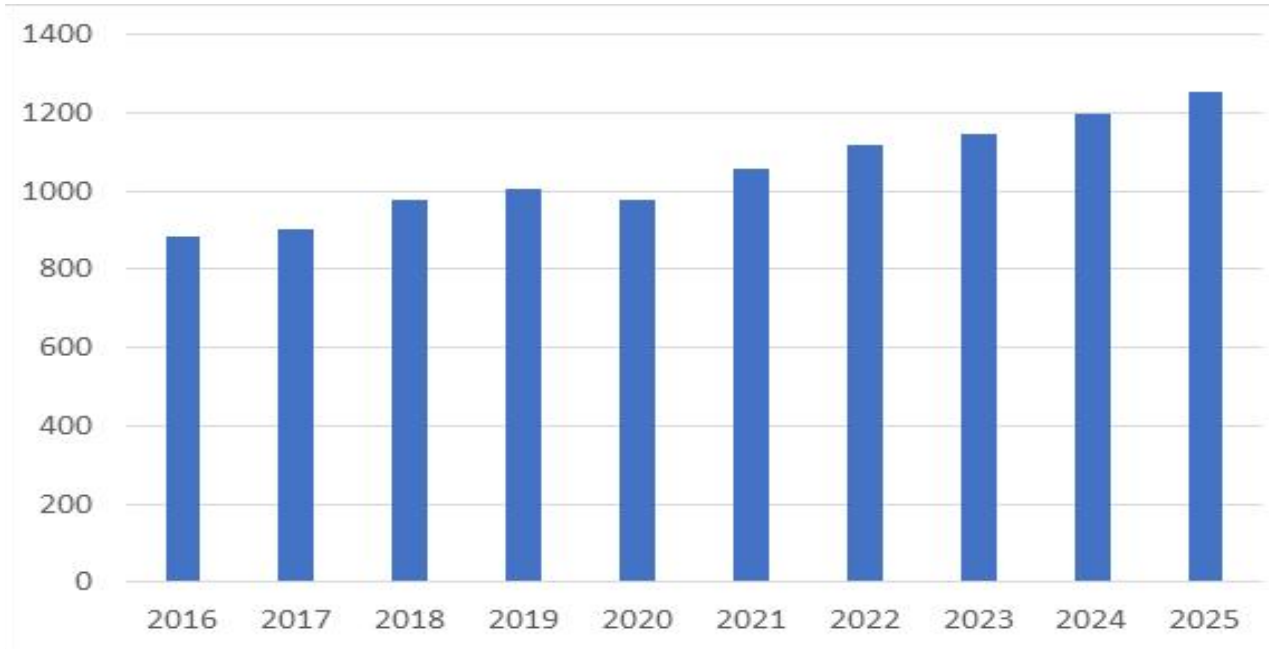
**(산업설비) 정유, 석유화학 플랜트를 포함한 2021년 세계 산업설비 시장규모는 1.06조 달러였으며, 2022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5.9% 증가한 1.12조 달러 예상**

- 2021년 분야별 주요 세계 산업설비 시장 규모는 석유화학 1,440억 달러, 유틸리티 1,770억 달러, 정유 290억 달러
- 2022년 시장규모는 석유화학 1,510억 달러, 유틸리티 1,121억 달러, 정유 3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성장률은 각각 4.9%, 5.6%, 13.8%
- 2025년 세계 산업설비 시장규모는 1.25조 달러로 증가해 2022년 대비 11.8% 증가할 전망
- 정유부문 시장규모는 2022년 330억 달러를 정점으로 2025년까지 32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예상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가 자동차용 연료 수요감소로 이어져 정유부문 투자가 정체될 것으로 예상



## 세계 산업설비 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HS

### 3. 지역별 건설시장 동향

**(아시아) 2021년 아시아 건설시장 규모는 5.74조 달러였으며, 2022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7.3% 증가한 6.16조 달러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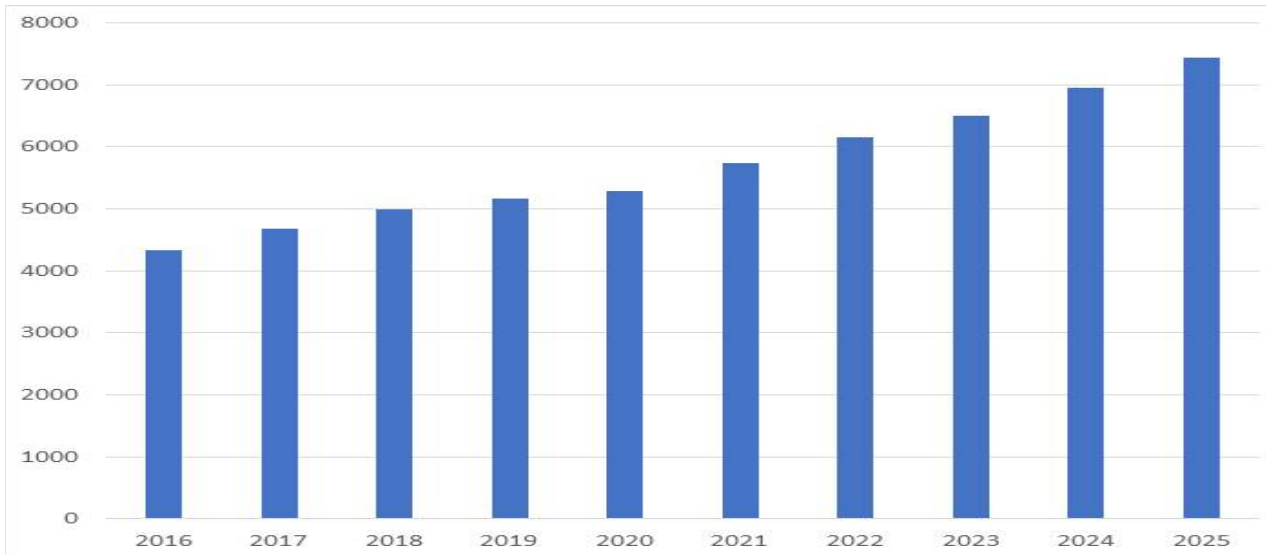
- 2021년 공종별 시장규모는 인프라 2.11조 달러, 주택 1.89조 달러, 건축 1.74조 달러, 산업설비 0.64조 달러
- 2022년 시장규모는 인프라 2.28조 달러, 주택 2.0조 달러, 건축 1.87조 달러, 산업설비 0.69조 달러로 각각 전년 대비 8.1%, 5.8%, 7.4%, 7.8% 등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2021년 분야별 아시아 인프라 시장규모는 교통 1.07조 달러, 에너지 0.67조 달러, 수처리 0.38조 달러였으며, 2022년 교통 1.17조 달러, 에너지 0.7조 달러, 수처리 0.42조 달러
- 인프라 분야가 아시아 지역 건설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2022년 교통분야 시장 증가율은 전년 대비 9.3% 증가 예상
- 2022년 아시아 산업설비 시장규모 0.69조 달러 중 석유화학 0.11조 달러, 유틸리티 905억 달러, 정유 127억 달러
- 2025년 아시아 건설시장 규모는 7.44조 달러로 예상되며, 2022년 대비 20.8% 증가할 전망





## 아시아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HS

**(유럽) 2021년 유럽 건설시장 규모는 2.59조 달러였으며, 2022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4.2% 감소한 2.48조 달러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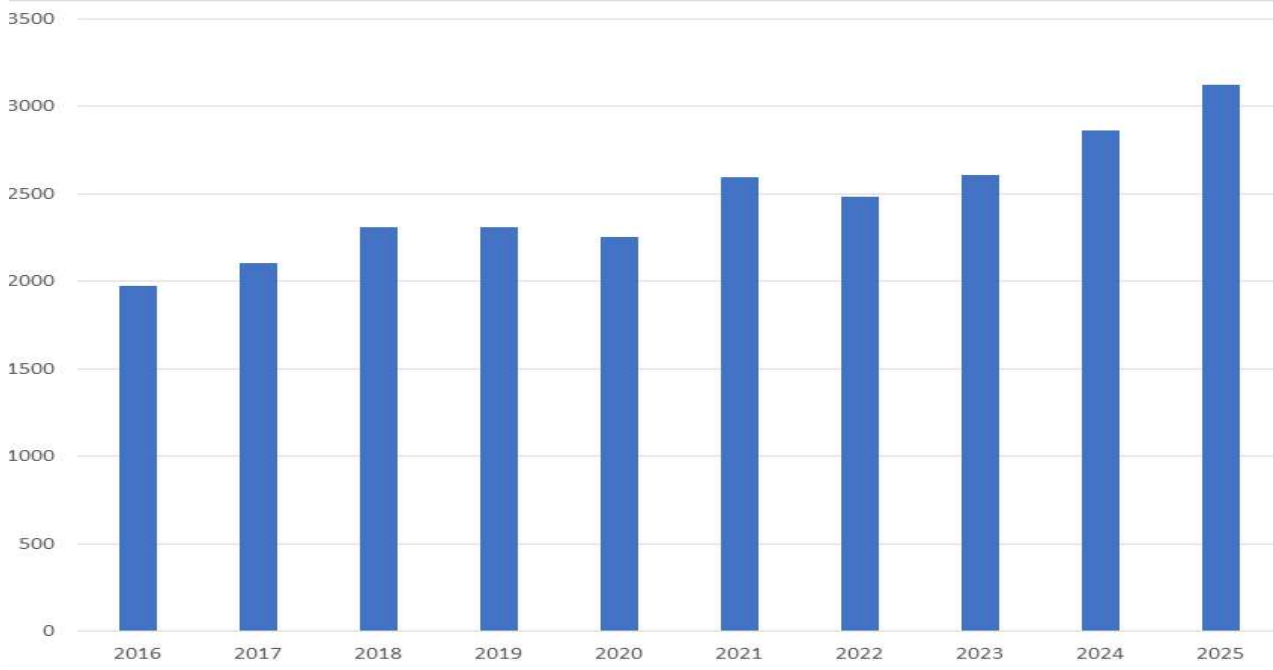
- 2021년 유럽 건설시장은 전년 대비 15.1% 성장했으며, 2022년 유럽 건설시장은 2021년 고 성장으로 인해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2021년 유럽 건설시장은 저금리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건설 투자가 집중돼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 2022년 소폭 감소 후 2025년 3.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
- 2021년 분야별 유럽 건설시장 규모는 주택 2.59조 달러, 인프라 1.21조 달러, 건축 0.74조 달러, 산업설비 0.2조 달러였으며, 2022년 시장규모는 주택 2.48조 달러, 인프라 1.17조 달러, 건축 0.70조 달러, 산업설비 0.19조 달러 예상

**(북미) 2021년 북미 건설시장 규모는 1.91조 달러였으며, 2022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9.4% 증가한 2.09조 달러 예상**

- 2022년 분야별 건설시장 규모는 주택 1.01조 달러, 건축 0.65조 달러, 인프라 0.43조 달러, 산업설비 0.20조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0.6%, 6.7%, 16.3%, 11.4%씩 성장할 전망
- 2025년 북미 건설시장 규모는 2022년 대비 9.9% 증가한 2.29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 북미 건설시장도 인프라분야가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IT기술과 접목한 스마트 교통 시스템 및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 과거 낡은 인프라 시스템을 최첨단 시스템으로 교체하기 위한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

## 유럽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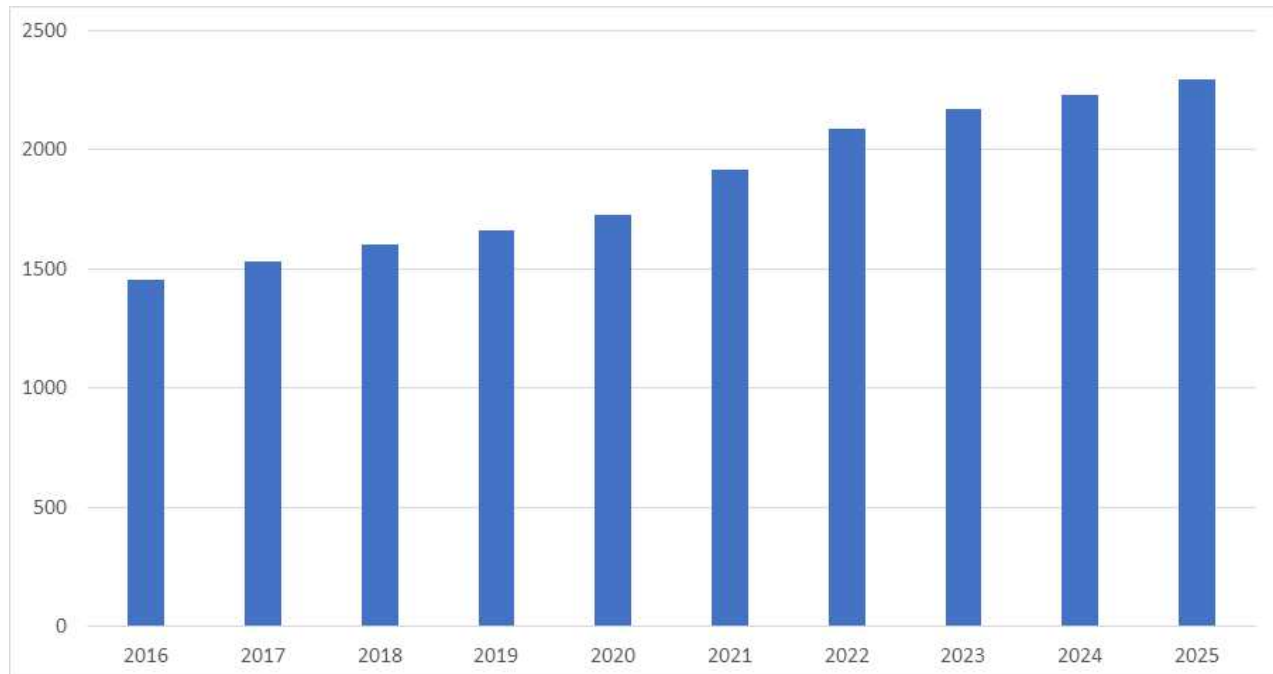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HS

## 북미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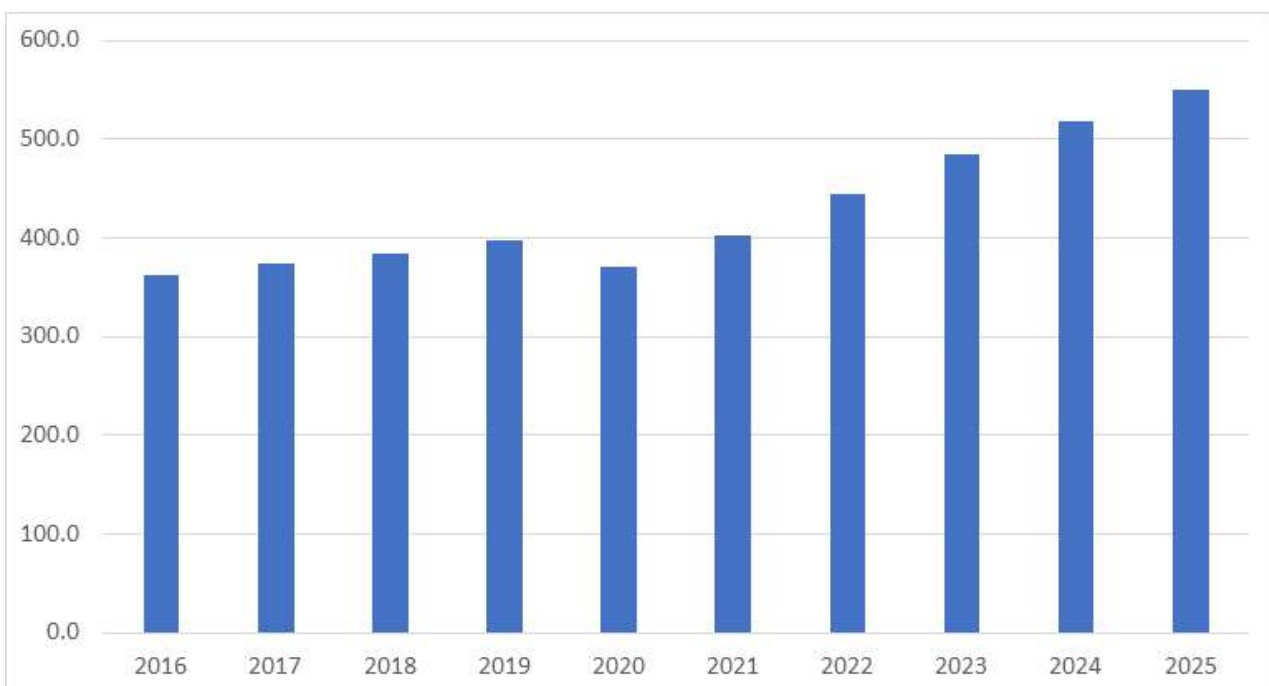


## (중동 및 아프리카) 2021년 중동·아프리카 건설시장 규모는 0.4조 달러였으며, 2022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0.0% 증가한 0.44조 달러 예상

- 세계 건설시장의 3.8%에 불과한 작은 시장이나, 민간기업에게 시장 개방도가 높아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지역
-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중동 건설시장은 마이너스 6.7% 성장을 기록했으며, 2021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8.9% 증가해 2019년 수준을 회복
- 2021년 코로나19 영향권을 벗어나 2022년부터는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중동·아프리카 건설시장 규모는 2022년 대비 24.2% 증가한 0.55조 달러 전망
- 2021년 분야별 시장규모는 인프라 0.17조 달러, 주택 0.13조 달러, 건축 0.10조 달러, 산업설비 339억 달러였으며, 2022년 시장규모는 인프라 0.19조 달러, 주택 0.14조 달러, 건축 0.11조 달러, 산업설비 354억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11.8%, 7.7%, 10%, 4.4% 증가 전망
- 상대적으로 외국기업에게 많이 오픈된 시장인 산업설비 시장은 전년 대비 4.4% 성장하는데 그쳐 이 지역 수주를 놓고 경쟁이 치열할 전망
- 중동지역도 친환경 에너지 분야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 화석에너지 기반의 석유화학 및 정유 플랜트 투자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전망

### 중동·아프리카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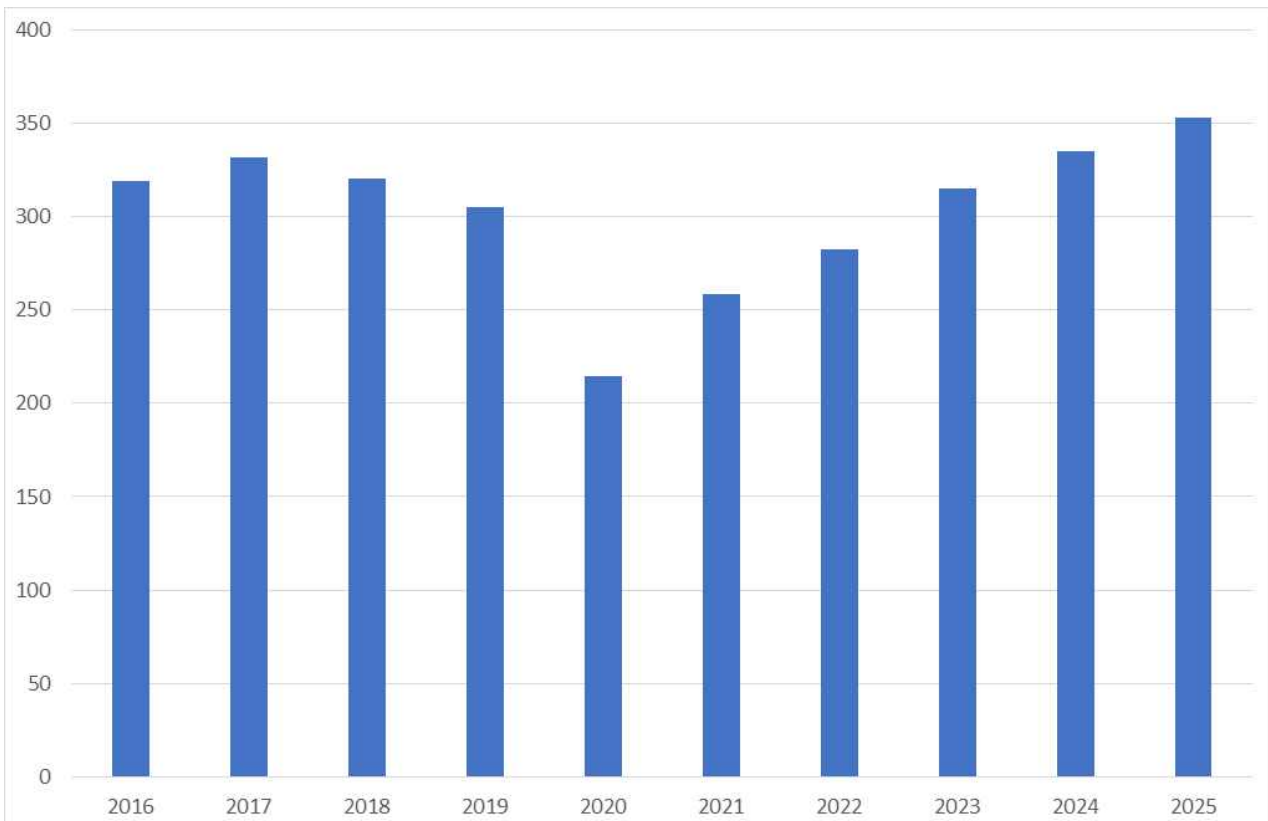
자료: IHS

## (남미) 2021년 남미 건설시장 규모는 0.26조 달러였으며, 2022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9.2% 증가한 0.28조 달러 예상

- 남미 건설시장은 2013년 4,345억 달러에 달했으나, 2020년 2,144억 달러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 중
-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남미 건설시장은 마이너스 29.7% 성장을 기록했으며, 2021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20.6% 증가했으나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
- 2021년 분야별 시장규모는 인프라 0.11조 달러, 주택 0.10조 달러, 건축 469억 달러, 산업설비 104억 달러였으며, 2022년 시장규모는 인프라 0.12조 달러, 주택 0.11조 달러, 건축 515억 달러, 산업설비 121억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9.1%, 10%, 9.8%, 16.3% 증가 전망
- 2022년부터는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남미 건설시장 규모는 2022년 대비 24.8% 증가한 0.35조 달러 전망

남미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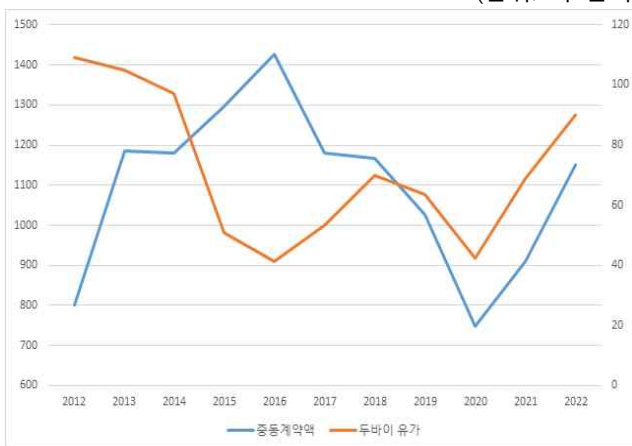
#### 4. 중동 발주동향

#####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중동 프로젝트 계약액은 전년 대비 23.9% 감소한 197억 달러

- 2021년 중동 프로젝트 계약액은 유가 상승과 함께 전년 대비 21.7% 증가한 910억 달러를 기록
- 2020년 중동 프로젝트 계약액은 코로나19 상황 발생 및 유가 약세로 2012년 이후 최저치인 748억 달러에 달했으나, 2021년 유가 상승과 함께 반등
- 2021년 하반기 이후 빠른 유가 상승으로 2022년 중동 계약액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1분기 계약액은 작년 대비 감소한 상황
- 유가 상승에 따른 우호적인 발주환경으로 2022년 2분기 이후 계약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철근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글로벌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조달 문제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시장 불확실성은 변수로 작용
- 2022년 중동 계약액은 유가 상승 및 지연되었던 프로젝트 발주로 전년 대비 26% 증가한 1,150억 달러를 예상하나, 하반기 글로벌 긴축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건설비용 증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

중동 건설 계약액 및 재정 균형 유가 동향

(단위: 억 달러)



자료: MEED

(단위: \$/bbl)

	2000 ~17	2018	2019	2020	2021p	2022p
사우디	-	88.6	81.9	77.9	76.2	65.7
UAE	48.7	64.2	61.7	68.2	64.6	60.4
카타르	44.5	49.2	50.0	46.2	43.1	40.4
이라크	-	45.4	52.3	63.7	71.3	66.1
쿠웨이트	-	53.6	55.0	68.1	69.3	64.5
두바이 평균유가	-	70	63.5	42.2	69	90

자료: IMF

## II. 글로벌 건설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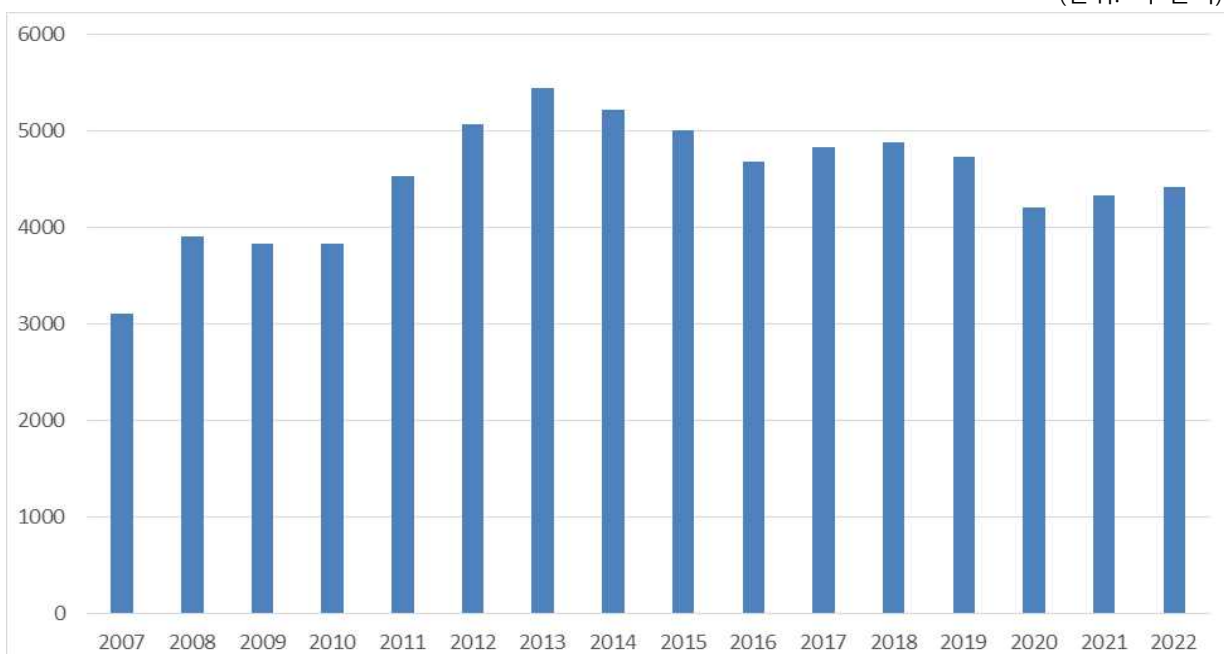
### 1. 글로벌 Top 250 기업 매출

글로벌 Top 250 건설기업의 2020년 매출액은 코로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1.1% 감소한 4,204억 달러에 불과

- 2020년 세계 건설시장은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2.6% 성장한데 반해, 글로벌 Top 250 기업의 매출액은 큰 폭으로 감소
-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재정을 이용한 인프라 및 주택시장이 커짐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접근성이 내수기업 대비 불리해 세계 건설시장 성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건설기업의 매출은 큰 폭으로 감소
- 2021년 및 2022년 글로벌 Top 250 건설기업의 매출액은 코로나19 상황 진정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9년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
- 2022년 상반기 코로나19 상황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건설기업의 매출액도 서서히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
- 하지만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인상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철강 및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은 변수로 작용

글로벌 Top 250 건설기업 매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자료: ENR, 전망치는 수출입은행

## 2. 공종별 Top 250 기업 매출

2020년 공종별 글로벌 Top 250 기업의 매출 규모를 살펴보면 교통분야 1,305억 달러, 건축 1,002억 달러, 정유·석유화학 577억 달러

- 대부분의 공종에 걸쳐 매출액 감소가 나타났으며, 건축 및 정유·석유화학 분야 매출액은 전년 대비 18% 감소, 교통분야도 전년 대비 11% 감소해 매출 감소 폭이 큰 분야
- 코로나19사태로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분야 발주가 늘어나고, 기업간 경쟁이 치열한 민간시장은 상대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추정
- 세계 인프라 시장의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 건설사 우대에 따른 기회 축소로 교통분야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액은 감소
- 중동발 플랜트 발주 감소는 정유·석유화학 분야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액 감소로 이어짐
- 코로나19 상황에도 태양광 및 풍력 재생에너지 발전 플랜트 분야 시장은 크게 성장하고 있어, 발전분야 매출액 감소는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

### 글로벌 Top 250 건설기업 공종별 매출 현황

(단위: 억 달러,%)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교통	1,534	31.8	1,522	31.2	1,466	31.0	1,305	31.0
건축	1,122	23.3	1,146	23.5	1,235	26.1	1,002	23.8
정유·석유화학	890	18.5	765	15.7	709	15.0	577	13.7
발전	500	10.4	507	10.4	486	10.3	471	11.2
산업설비	192	4.0	217	4.4	160	3.4	168	4.0
상수	123	2.6	144	3.0	139	2.9	130	3.1
제조공장	97.4	2.0	161	3.3	108	2.3	110	2.6
하폐수	71.1	1.5	85	1.7	79	1.7	86	2.0
통신	50	1.0	68.7	1.4	78	1.6	69	1.6
폐기물	9	0.2	7.3	0.1	5	0.1	5	0.1
기타	231	4.8	250	5.1	266	5.6	281	6.7
합계	4,824	100	4,873	100	4,731	100	4,204	100

자료: ENR



### 3. 지역별 Top 250 기업 매출

**(아시아) 2020년 글로벌 Top 250 건설사들의 아시아 지역 매출액은 1,07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3% 감소**

- 2020년 아시아 건설시장 규모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Top 250 기업들의 아시아 지역 해외 매출액은 감소했으며, 2021년에도 감소 추세가 지속됐을 것으로 추정
- 세계 최대 건설시장인 아시아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액 감소는 경기부양을 위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국기업 우호정책때문
- 인프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민간발주보다는 공공발주가 많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의 입찰 참여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음
- 2021년에도 현 기조가 지속됐을 것으로 추정되며, 2022년에도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여러 변수로 글로벌 건설기업의 수주환경은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유럽 및 북미) 2020년 유럽 및 북미시장에서 글로벌 Top 250 기업들의 매출액은 각각 1,060억 달러, 816억 달러**

- 2020년 글로벌 Top 250 기업들의 유럽지역 매출은 전년 수준을 기록, 기업들의 매출액 감소가 나타나지 않은 유일한 지역
- 유럽지역 내 다른 국가에 대한 시장 개방도가 높아 외국 기업의 접근이 어려운 타지역 내수시장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 시장
- 2021년 및 2022년에도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인프라에 대한 유럽지역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 유럽지역 건설사 매출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2020년 글로벌 건설사들의 북미지역 해외매출액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 대비 7.6% 감소
- 유럽지역 건설사들은 북미지역에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었으나, 코로나19 발발과 함께 북미지역 수주에 차질을 빚고 있음
-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2021년 북미지역 글로벌 건설사들의 매출 감소는 지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2022년에도 글로벌 금리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사태 등 거시경제 변수의 불확실성 확대로 매출 감소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중동) 2020년 글로벌 Top 250 건설사들의 중동지역 매출액은 전년 대비 22.3% 감소한 55억 달러에 불과**

- 유가 급락에 따른 중동지역 발주 지연은 글로벌 건설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 2021년 중동발주 부진이 지속되었으며, 2021년 하반기 이후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발주증가 기대감이 존재하나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2022년 발주상황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글로벌 Top 250 건설기업 지역별 매출 현황

(단위: 억 달러,%)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아시아	1,276	26.5	1,274	26.1	1,252	26.5	1,073	25.5
유럽	1,023	21.2	1,078	22.1	1,058	22.4	1,060	25.2
중동	814	16.9	809	16.6	714	15.1	555	13.2
북미	782	16.2	809	16.6	883	18.7	816	19.4
아프리카	624	12.9	601	12.3	552	11.6	483	11.5
중남미	272	5.6	271	5.6	233	4.9	196	4.7
기타	33	0.7	31	0.6	39	0.8	21	0.5
전체	4,824	100	4,873	100	4,731	100	4,204	100

자료: ENR

### 4. 국가별 Top 250 기업 매출

**2020년 글로벌 Top 250 기업 중 중국기업의 매출액은 1,075억 달러로 1위를 기록했으며, 스페인 626억 달러, 프랑스 456억 달러, 독일 333억 달러 순**

- 중국 기업들의 해외 매출액은 매년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했으나,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전년 대비 10.4% 감소한 1,075억 달러를 기록
- 2020년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지역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아시아 443억 달러, 아프리카 294억 달러, 중동 189억 달러로 주요 3개 지역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86%를 차지
- 특히 주목해봐야할 부분은 중국의 중동 매출액이 2016년 134억 달러 → 2017년 164억 달러 → 2018년 171억 달러 → 2019년 176억 달러 → 2020년 189억 달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
- 과거 가성비로 바탕으로 중동지역 플랜트 시장에 진출했으나, Track record가 쌓이면서 중동지역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 2020년 글로벌 Top 250 건설사 중 유럽지역 건설사들의 해외 매출액은 214억 달러였으며, 매출액의 69%가 유럽(80.9억 달러), 북미(55.6억 달러), 남미(11.5억 달러)에서 발생



## 글로벌 Top 250 건설기업 국가별 매출 현황

(단위: 억 달러,%)

국가	2017년		국가	2018년		국가	2019년		국가	2020년	
	매출액	점유율 (%)		매출액	점유율 (%)		매출액	점유율 (%)		매출액	점유율 (%)
중국	1,140	23.6	중국	1,190	24.4	중국	1,200	25.4	중국	1,075	25.6
스페인	670	13.9	스페인	687	14.1	스페인	707	14.9	스페인	626	14.9
프랑스	368	7.6	프랑스	426	8.7	프랑스	469	10.0	프랑스	456	10.8
미국	335	7.0	미국	342	7	독일	311	6.6	독일	333	7.9
독일	303	6.3	독일	316	6.5	한국	246	5.2	한국	214	5.1
한국	257	5.3	한국	290	6.0	미국	246	5.2	미국	204	4.9
일본	253	5.2	터키	222	4.6	터키	216	4.6	이태리	202	4.8
터키	232	4.8	일본	197	4	영국	197	4.2	터키	183	4.4
영국	222	4.6	영국	189	3.9	일본	194	4.1	일본	163	3.9
이태리	186	3.9	이태리	162	3.3	이태리	145	3.1	네덜란드	80	1.9
전체	4,820	100	전체	4,869	100	전체	4,731	100	전체	4,204	100

자료: ENR



### III. 해외건설 수주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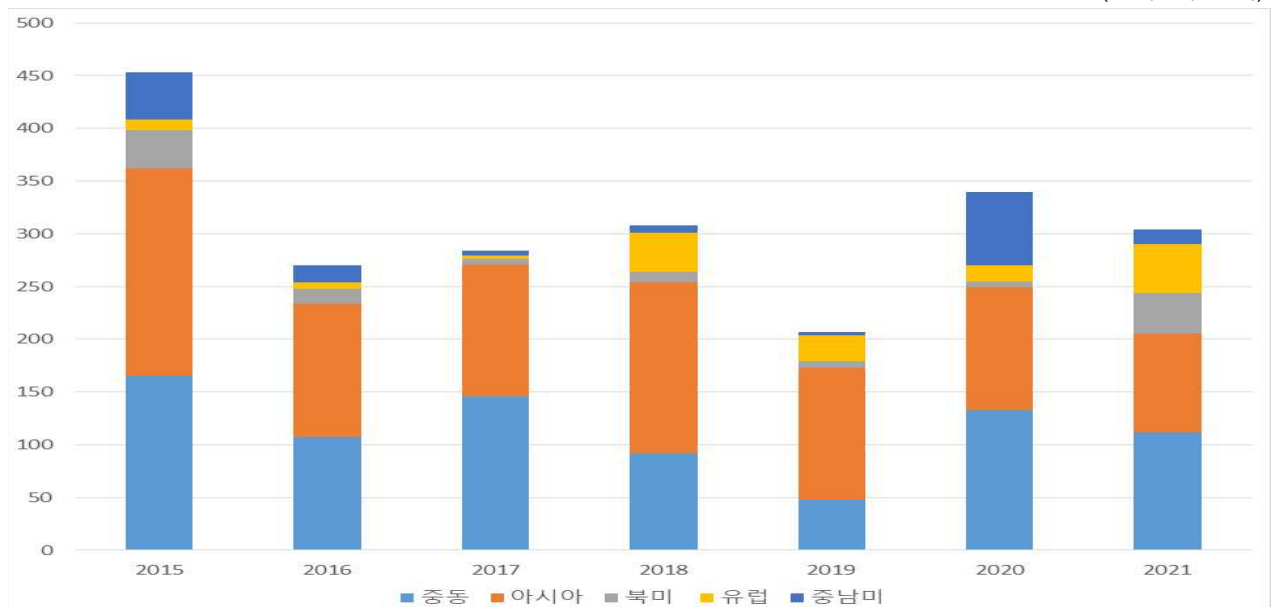
#### 1. 수주동향

##### 2021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 대비 12.8% 감소한 306억 달러를 기록

- 지역별 수주액을 살펴보면 중동 112.2억 달러, 아시아 92.5억 달러, 북미 39.3억 달러, 유럽 45.9억 달러, 중남미 13.8억 달러를 기록
- 핵심 수주 지역인 중동 및 아시아 수주가 전년 대비 각각 15.8%, 20.1% 감소해, 2021년 해외건설 수주 감소의 주요인으로 작용
- 중동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지연되었던 발주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코로나 불확실성 지속 및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발주 지연이 지속
- 코로나19 및 외국인 직접 투자 감소로 아시아 지역 발주가 감소하면서 산업설비 및 건축부문에서 수주가 전년 대비 감소
- 전년 수주 특징 중 하나는 북미 및 유럽 등 선진시장 수주가 증가한 것이며, 이는 우리 기업들의 수주지역 다변화의 성과
- 공종별 수주액을 살펴보면 토목 58.6억 달러, 건축 41.0억 달러, 플랜트 164억 달러를 기록
- 2021년 플랜트 수주액은 전년 대비 3.7% 감소했으며, 토목 및 건축분야 역시 전년 대비 각각 38.9%, 55.1% 감소
- 4분기 중동, 아시아, 및 유럽 석유화학 및 발전 플랜트 수주가 집중되면서 타공종 대비 수주 감소 폭 축소

지역별 해외건설 수주 동향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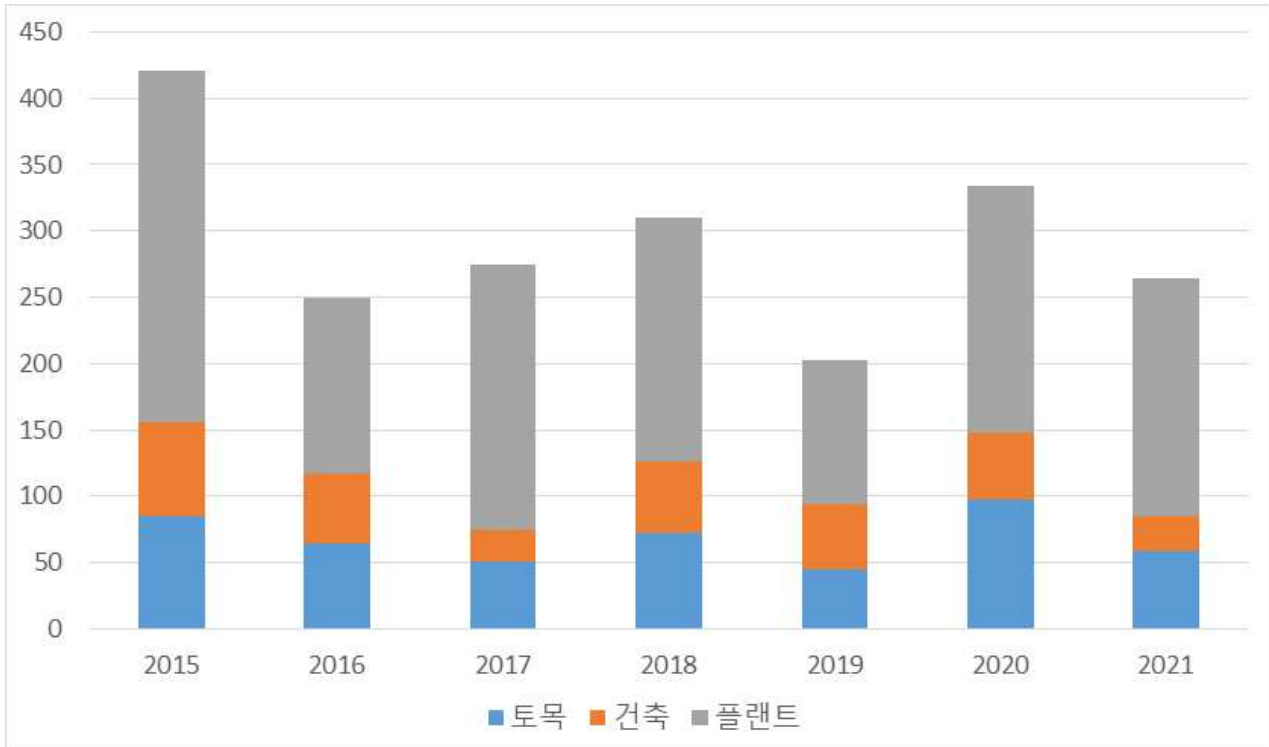


자료: 해외건설협회



## 공종별 해외건설 수주 동향

(단위: 억 달러)



자료: 해외건설협회

###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해외건설 수주액은 93.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 감소

- 지역별 수주액은 중동 12.1억 달러(-70.2%), 아시아 61.7억 달러(120%), 유럽 16.1억 달러(167%)를 기록
- 중동 수주는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아시아 지역 수주가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으며, 11.4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발틱 케미컬 콤플렉스 수주로 유럽지역 수주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것이 특이점
-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중동 발주가 예상보다 저조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상반기 중동 수주는 전년 수준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는 4월까지 해외건설 수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상황이나, 장기화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해외건설 수주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
- 국제 철광석 가격은 작년 12월 톤당 100달러 대 였으나, 4월 말 기준 톤당 150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시멘트 제조 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도 미국의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로 2월 톤당 150달러에서 3월 250달러까지 급등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시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은 불가피하며, 원자재 가격 상승은 건설사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쳐 적극적인 해외수주 활동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



## 국내 및 해외건설 수주액 동향

(단위: 억 달러, 조 원)



자료: 해외건설협회

### 2022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코로나 및 유가 상황 개선 등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한 320억 달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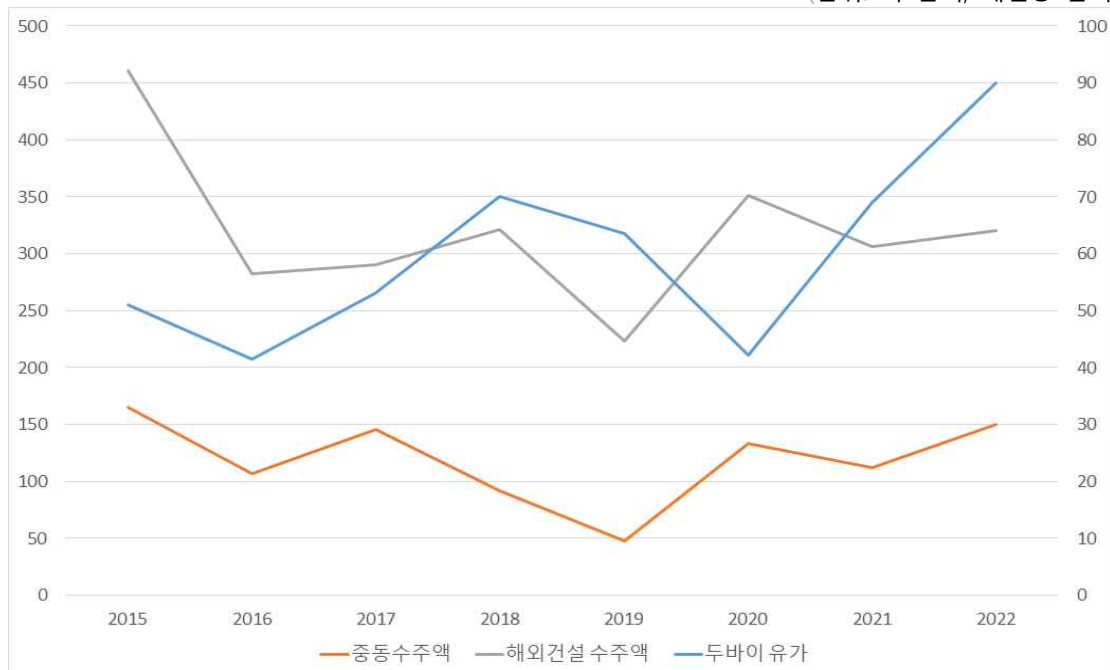
- 2016년 이후 해외건설 수주액은 200~350억 달러 수준에서 박스권을 형성 중이며, 올해도 현 박스권 내에서 수주액이 머무를 예상
- 해외건설 수주액이 정체되어 있는 이유는 2015년 이후 국내 주택시장의 호황과 2010년대 대 규모 저가 해외수주에 따른 후유증으로 수익성 중심의 수주 전환때문
- 2022년 국내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 수준인 215조원으로 양호한 흐름이 예상돼 우리 건설사들은 해외 수주 확대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수익성이 보장되고 리스크가 낮은 내수시장 수주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
- 중동 수주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유가는 2021년 10월 이후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강세를 이어가고 있어, 유가 상승에 따른 중동 수주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 2021년 100억 달러에 못 미쳤던 중동 수주는 2022년 100억 달러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
- 우호적인 유가 상황 및 석유화학 제품 공급을 위한 플랜트 증설 수요 등으로 중동 플랜트 발주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중동 수주는 150억 달러 수준을 예상



- 하지만 최근 글로벌 금리인상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300억 달러 이상의 해외건설 수주 달성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경기변동에 민감한 건설산업의 특성상 금리인상은 글로벌 경기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며, 조달비용 상승 문제도 발생
- 원자재 가격 상승은 공사단가 인상을 유발시켜 건설사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어 적극적인 해외수주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

### 유가에 변동에 따른 중동 수주액 동향

(단위: 억 달러, 배럴당 달러)



자료: 해외건설협회

## 2. 기업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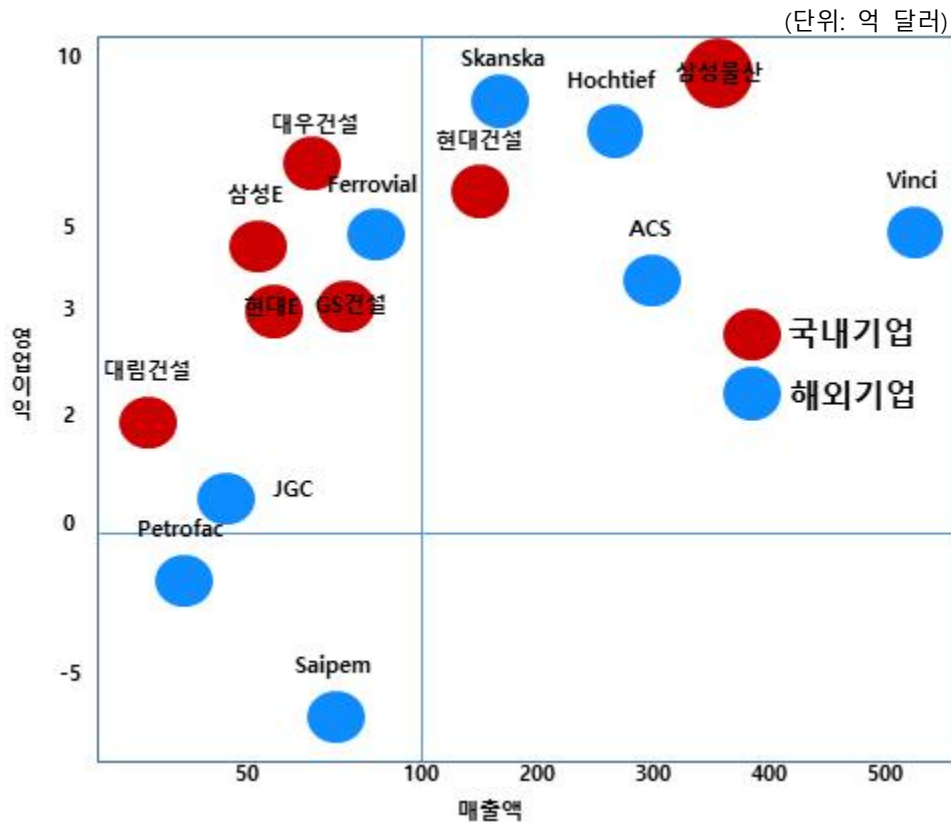
### 2021년 해외건설 수주액 306억 달러 중 상위 10개 기업 비중은 86.3%

- 상위 기업들의 중동지역 수주액은 부진했으나, 북미 및 유럽 지역 수주 확대로 전년대와 유사한 수준의 실적을 기록
- 삼성물산(70억 달러)이 전체 수주액의 22.8%를 차지했으며, 삼성엔지니어링(35.6억 달러), 현대건설(33.9억 달러), 현대엔지니어링(29억 달러), GS건설(26.3억 달러), 두산중공업(20.9억 달러) 순
- 2021년 삼성물산은 중동과 아시아에서 대형 LNG 수출기지, 공항, 및 초대형 해저 송전공사를 수주했으며, 삼성엔지니어링은 대형 가스처리시설 및 석유화학 공사 수주에 힘입어 국내 건설기업 중 수주액 2위를 기록

## 과거 문제가 되었던 현안공사가 마무리되고, 내수시장 비중 확대로 주요 건설사 2021년 실적은 글로벌 수준으로 회복

- 유럽 글로벌 플랜트회사인 Petrofac 및 Saipem사는 중동지역에서의 무리한 수주로 인해 2021년 큰 폭의 적자를 기록
- 국내 건설사의 경우 수익성이 높은 국내 주택시장에서의 선전으로 글로벌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
- 2022년은 글로벌 금리인상, 원자재 및 인건비 등 비용 증가 등 경영변수 불확실성 확대로 과거 대비 원가관리 중심의 보수적인 수주활동이 예상

### 2021년 주요 건설사 실적 동향



자료: 블룸버그



## IV. 시사점

**세계 건설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권을 벗어나 2022년부터 안정적인 성장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성장의 양대 축은 친환경과 인프라 분야**

- 2022년 세계 인프라 시장 성장률은 6.8%에 달해 전체 세계 건설시장 성장률보다 높은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시장규모는 4.5조 달러에 달해 2022년 대비 16.1% 증가할 전망
- 1,2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화석에너지 기반 인프라는 낡아서 교체시기가 도래했으며, 여기에 기후변화 이슈로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및 수소 등 친환경 인프라로 전환이 가속
- 2021년 글로벌 신규 발전소 건설 물량은 약 200GW로 추정되며, 이중 160GW가 태양광 및 풍력으로 건설되는 등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음
- 전기 및 자율주행 자동차 보급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충전 및 지능형 교통 인프라 건설이 빠르게 증가

**세계 건설시장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외국기업에 오픈된 시장 규모는 축소되고 있는 것도 세계 건설산업의 또 다른 추세**

- 글로벌 건설기업의 매출액은 2013년 5,440억 달러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내수시장에서 외국기업의 참여가 제한 또는 축소되고 있기 때문
- 내수기반의 성격이 강한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 건설시장이 성장하고, 코로나19 극복 및 경기부양을 위해 내수 건설기업을 중심으로 한 시장참여가 제한돼 외국기업들의 시장참여 기회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
- 글로벌 건설기업들의 참여가 많은 석유화학 등 플랜트 분야 수요는 상대적으로 수요 증가세가 낮아지고 있는 것도 외국건설기업들의 해외시장 매출이 줄어드는 요인으로 작용
- 우리기업들 해외건설 수주액도 세계 건설시장이 내수시장 중심으로 성장함에 따라 과거와 같은 큰 폭의 수주증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2022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수익성 중심의 보수적인 수주 스탠스가 지속돼 전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국내 건설시장은 2022년에도 215조 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시장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 국내 건설시장 규모는 2019년 166조 원, 2020년 194.1조 원, 2021년 214.4조 원이며, 민간 분야 시장규모는 2019년 118조 원, 2020년 142조 원, 2021년 156조 원으로 코로나19 상황에도 호황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 2022년에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국내 건설시장의 호황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리스크가 높은 해외건설 수주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수주 유인이 낮은 상황





**원자재 가격 및 금리 상승 등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내 건설시장의 호황도 2024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다운턴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2년 이후 해외수주 확대를 위한 우리 건설사들의 노력이 필요**

- 2015년 이후 주택건설 분야의 호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국내 시장의 호황이 끝나감에 따라 향후 해외 수주의 필요성이 점차 커질 전망
-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우리 건설사들은 해외 수주시 단순 도급에 치중했던 과거와 달리 FEED 연계형 EPC, 지분 투자형 사업 확대 등으로 수주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경쟁이 치열해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는 중동 수주 일변도에서 호주, 유럽 및 북미 등으로 지역다변화를 추진 중
  - 부가가치가 낮고 리스크가 높은 단순 시공에서 벗어나 본공사 수주에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FEED, PMC, 및 O&M 분야 수주액이 전년 대비 29% 증가
  - 북미 등 선진국에서 대규모 투자개발 사업을 수주하는 등 투자개발형 사업 비중도 2020년 1.8%에서 2021년 10.2%로 증가
  - 2021년 수주한 2.7조원 규모의 호주 North East Link Privary PKG는 시공뿐만 아니라 운영권 및 관리권을 확보한 PPP사업으로 25년간 운영수익도 배당받는 프로젝트
- 우리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수소플랜트, CCUS(Carbon Capture Utilisation and Storage) 등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 중
  - 수소 플랜트 및 CCUS 분야에서 국내 건설사들이 기초설계 능력 등 기술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태양광 및 풍력 프로젝트 개발 및 투자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